



GLN International Office & News





하나은행 '글로벌 결제 플랫폼' 영토확장 시동

입력 2021.10.19. 오후 5:18 · 수정 2021.10.20. 오전 2:10

빈난새 기자 >

9 댓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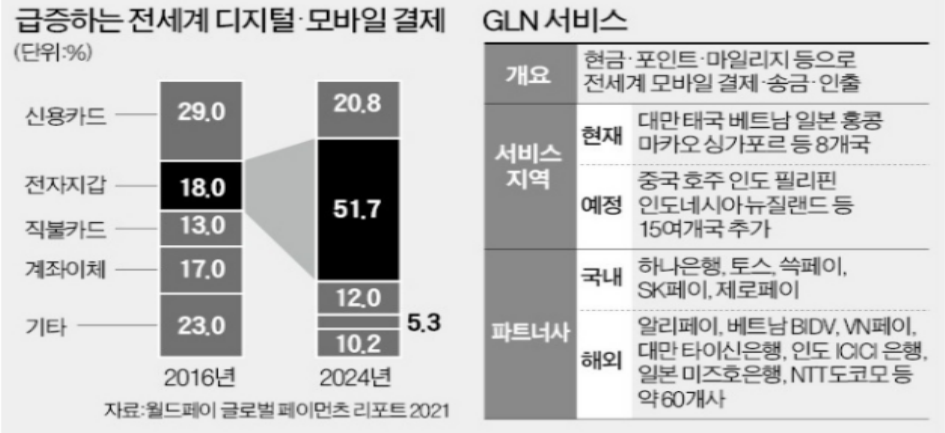
자회사 'GLN' 독립...5대 금융지주 손잡고 세계로

세계 8개국서 외화 환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송금 가능
수수료 낮고 거래 과정도 간편

'글로벌 금융허브' 확장 시동
"내년 20개국 서비스 제공 목표
대만·일본서 투자유치 추진도"

하나은행이 설립한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 'GLN(Global Loyalty Network)'이 별도 회사로 독립 분사했다. 비자·마스터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KB·신한·우리·농협금융 등 국내 5대 지주와도 협업의 물꼬를 댔다.

GLN은 소비자가 세계 어디서나 국경의 제한 없이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결제와 송금, 현금 인출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카드나 외화 환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GLN을 통해 어디서나 간편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내에선 아직 하나은행, 토스 등 몇몇 GLN 파트너사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분사를 계기로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해 국내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서비스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분사 마무리, 투자 유치도 추진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의 영업 양도 인가 승인을 받아 은행 내부에서 추진하던 GLN 사업을 '지엘엔인터내셔널'에 넘길 예정이다. 지엘엔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GLN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의 핀테크 자회사로 출범했다. 대표는 GLN을 이끌어온 한준성 전 하나금융 그룹디지털총괄 부사장이 맡았다. 초기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하나은행이 400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지엘엔인터내셔널이 이달 전자금융업 등 GLN 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선스 등록을 마치면 추가 출자와 영업 양수 절차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파트너사인 대만·일본계 은행이 유력한 투자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GLN은 대만, 태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8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중국, 호주, 인도 등 해외 서비스 지역을 20여 개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비자 브랜드가 붙은 카드가 있으면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GLN 이용자들은 세계 GLN 파트너사에서 현금은 물론 금융사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송금·출금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별도로 환전할 필요 없이 파트너사의 앱을 통해 GLN 머니를 충전해 두기만 하면 가맹점에서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현지 자동화기에서 출금도 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거래 때마다 카드사를 거치는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정산도 빠르다"며 "신용카드가 저무는 시대에 새 결제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대 금융지주 "협업 열려 있다"

관건은 확장성이다. GLN 플랫폼에는 중국 알리페이, 베트남 BIDV은행, VN페이, 일본 NTT도코모 등 해외 유수 금융사와 간편결제 사업자, 통신사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모회사인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토스, 쓱페이, SK페이, 제로페이가 전부다.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진정한 글로벌 허브가 되려면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내 5대 은행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GLN 분사 이후 서비스 협력 가능성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렇게 되면 가령 신한은행의 앱 '쓱'이나 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에서도 각 은행 계좌를 연동해 GL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차후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서비스 참여부터 지분 투자까지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2022금융IT혁신] "해외 결제도 로밍처럼"...GLN인터내셔널, 글로벌 '금융 로밍 서비스' 지향

"통신처럼 결제도 편하게".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결제 허브 구축 나설 것

이상일 2021.12.10 09:04:18

가+ 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하나금융그룹의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지급결제 허브인 GLN인터내셔널이 하나은행이 등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외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주최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웨비나 플랫폼 'DD튜브'를 통해 개최되는 [2022년 전망, 금융IT 혁신 버추얼 컨퍼런스]에서 GLN인터내셔널 한준성 대표 디지털 자산들을 글로벌하게 연결해 소비자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밝혔다.

디지털 자산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실제 각 나라의 정부나 기업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다. 반면 디지털화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다.

한 대표는 "예를 들어 교통카드는 국내 교통에만 활용하는데 교통카드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각자 디지털 자산들을 발행하거나 혹은 서비스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편의성 문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아래 출발한 글로벌 모바일 페이먼트 허브 'GLN'은 전 세계 금융기관 혹은 소매업자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글로벌 결제와 ATM 현금 인출, 송금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하나금융그룹에서 준비한 GLN 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이 가져온 외환(FX) 중개 능력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준성 대표는 "글로벌 결제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수십 년간 한국 내 1위 금융기관으로 가장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업무 노하우를 그대로 GLN에 옮겨왔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의 경우 GLN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해외 가맹점에서 고객은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 결제가 가능하다.

한준성 대표는 "외국에 나가면 주로 카드를 쓰지만 때로는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 GLN에선 에이티엠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 계좌, 마일리지 포인트 등 디지털 자산을 해외에서 실시간 FX 적용을 통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도 GLN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해외여행 시 환전을 통한 현금사용, 신용카드 사용 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GLN은 소비자와 상점간 결제를 가급적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간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 또 해외 결제시 계좌에서 정확히 '원화'로 얼마가 결제됐는지 실시간으로 표시해준다.

한준성 대표는 "GLN에서 실시간으로 FX 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LN은 쿠폰 서비스의 아시아 허브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다. GLN은 현재 각 나라의 언어지원은 물론 현지 쿠폰 서비스를 한데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대표는 "본인이 자주 쓰는 앱에서 쿠폰 플랫폼을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면 쿠폰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가서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쿠폰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한 은행 앱에는 GLN 버튼이 포함돼 있다. 셀렉트 QR코드 페이먼트를 실행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한국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해외 현지에서 ATM 인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도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GLN 서비스를 통해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GLN인터내셔널은 일본 세븐뱅크와 제휴를 진행했다.